

左 정은이 右 푸틴보다 높은 이유



전 형 일 의

세상이야기

침팬지는 몸짓 신호 외에 새로운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은 만들지 못한다. 인간처럼 구문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한 뇌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구문 처리는 뇌의 좌반구 회로가 담당한다. 그래서 인간의 90%가 오른손잡이가 됐다. 이에 따라 인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중심의 문화가 보편화됐다.

반대로 왼손잡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차별을 정당화하며 뿌리 깊은 편견으로 발전해 왔다. 서양 중세 시대에 왼손잡이들은 결혼 상대자로 부적합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에서 식사는 오른손으로 하고, 뒷일은 왼손으로 처리하는 것도 오른쪽 우위 개념이다. 서아시아에서는 왼손으로 음식을 건네줘서도 안 된다. 그만큼 왼손은 불결하고 불손하다고 생각한다.

영어로 오른쪽 'Right'는 '정의' 또는 '권리'라는 뜻도 포함된다. 서양식 교육을 도입한 우리도 오른손은 '바른 손'으로 배워왔다. 타고 난 왼손잡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

모에게 오른손 사용을 강요받고 자랐다.

이 같은 현실에서 중국만이 유일무이하게 '왼쪽 존중' 관념을 갖고 있다. 한자에서 대등한 개념은 선행하는 글자가 대부분 우선한다. 천지(天地), 일월(日月), 남녀(男女) 등에서와 같이 앞 글자 뜻이 먼저이다. 좌우(左右)도 마찬가지다.

특히 고대 중국에서는 오른쪽 우위 개념을 아예 오랑캐 문화로 여겼다. 예기(禮記)에는 공자가 "내가 오른손을 위로 하는 것은 내 누님의 상(喪)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군자는 평소에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지만 병기를 쓸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병장기란 상서롭지 못한 것이므로 길사에는 좌를 내세우고, 흉사에는 우를 내세우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왕조에서도 임금의 남쪽을 바라보면서 왼쪽에는 문관, 오른쪽은 무관을 자리하게 했다. 자리 배치를 통해 중문경무(重文輕武)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것도 이런 이유이다.

'왼쪽 우선'은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최근까지 이어진 병호시비(屏虎是非)다. 이는 1620년 퇴계 이황을 모신 여강서원(호계서원으로 개칭)에 제자인 서에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 중 누구 위패

를 좌배향(左配享)에 둘 것이냐를 두고 시작된 분쟁이다. '屏'은 풍산 류씨의 병산서원, '虎'는 의성 김씨의 호계서원이다. 즉 서애와 학봉 중 퇴계 제자로서의 서열을 정리하는 두 가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안동 지역 유림도 갈라졌다.

이 논란은 2013년 퇴계 좌측에 서애, 우측에 학봉 위패를 모시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종료됐다. 하지만 이후 예안향교 측이 호계서원이 복원된 위치와 서원에 퇴계 위패를 모시는 것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퇴계 후손들이 퇴계 선성 위패를 모시고 나왔다. 유교에서는 서원에 위패가 없으면 제사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좌측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400년 싸움이 허망하게 됐다.

중국은 역사와 전통에 강한 자부심을 보이지만 여전히 관습에 얽매어 있다. 일례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은 정확히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로 예정돼 있었다. 중국어로 8이 돈을 번다는 뜻의 발제(發財)와 비슷해서 8을 갈한 숫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에서 지난 전승절 기념식에 시진핑 주석 왼쪽에 김정은을, 오른쪽에 푸틴을 세웠다. 북한을 극진히 예우하면서 그만큼 영향력은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前 언론인, 명리학자, 철학박사

공교육의 무게 앞에 선 인사 논란



이지수집

이 현 진
(정책사회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은 역대 정부마다 빠지지 않는 교육 공약이었다. 지금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자리에 사교육업체 대표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에 파장이 일었다.

교육시민단체 39곳은 대통령실 앞에서 지명 철화를 요구했고, 현장 교사들도 "입시 경쟁이 심화될 것",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짧은 파동만으로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국민 인

식 사이에 얼마나 큰 불신의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줬다. 누가 교육비서관에 왔든, 국민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지는 것이다.

특히 거론된 인사는 과거 공문화 과정에서 "학생부 평가가 교사 재량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수능이 상대적으로 더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교사들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공교육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차기 교육비서관은 과거 경력이나 인사 논란에 매몰되기보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와 돌봄 강화, 지역 간 격차 해

소 같은 생활 밀착형 대책 없이는 개혁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 교사의 업무 부담 해소, 학생 선택권 보장 등 현장의 과제를 해결할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교사·학부모·학생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공정성 논쟁은 단순히 시험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아이들의 삶 전반의 형평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출발선의 불평등을 줄이고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교육이 지향해야 할 진짜 공정이다.

국민의 요구는 단순하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가 제 역할을 하며,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는 것이다. 교육비서관 자리에 누가 왔든, 이 원칙을 지켜낼 때만 국민은 안심할 수 있다. /l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1일 (음 7월 2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협력자를 구하고 일을 진행, 48년생 숙명은 바꿀 수 없는 필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라는데, 60년생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들 있다. 72년생 참으면 편하다, 84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중히,



37년생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49년생 운동과 휴식이 겸비될 때 업무능력과 효율성도 증가, 61년생 일에 치여 삶을 실종 당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도록, 73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리니 행운이 따른다, 85년생 떠난 인연에 연연해 하지 마라,



38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50년생 남은 노후를 위해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 62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74년생 책임감이 강하지 만 안달성향도 있으니 신중, 86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를 얻는다,



39년생 퇴직금이 있어 희망이 있다, 51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도전, 63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종일 운전 주의, 75년생 퇴직 후 편하게 살고 싶다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87년생 오랜 적선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40년생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52년생 시부모님께 시큰둥 하지 말도록, 64년생 비가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쉬어가라, 76년생 살다 보니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데, 88년생 집 안 청소를 적극적으로,



41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았다, 53년생 소리도 없는 적막강산, 65년생 부모님이 전적으로 믿어주시 힘에 난다, 77년생 누구나 가슴에 품은 뜻이 있게 마련, 89년생 먹고사는 걱정을 더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축복인가,



42년생 빗을 내서 빗을 갠 형국, 54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당한다, 66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 78년생 꽃 봄비가 내리니 세상이 환하다, 90년생 살아보니 조상님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



43년생 직장에서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온다, 55년생 목마를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67년생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 79년생 겸손함을 키우고 분별하는 생각을 줄여보면 발전이 온다, 91년생 닳보다는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라,



44년생 이간질하지 않는 것 반려등을 확대하지 않는 것도 품격이다, 56년생 불평을 떠드는 것도 소용, 68년생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데 모르는 곳에서 도움을 준다, 80년생 절약한다면서 남 피해주지는 말아야, 92년생 비빌 언덕이 절실,



45년생 부드러움보다 강하게 나가야 하는 날, 57년생 일하고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는다, 69년생 뛰어난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 81년생 실력을 키우다 보면 길상한 복은 자연히 빛을 따라 모인다, 93년생 지하철에서 계단 조심,



46년생 마음자리를 바꾸면 개운이 된다, 58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 70년생 팔자의 특정한 속성의 영향을 받는 것 즉 숙명이라 볼 수 있다, 82년생 인생이 박하다 해도 선행이 모이면 부귀의 빛이, 94년생 남의 험담을 들어도 조용히,



47년생 오후 휴식형 저녁을 먹는다, 59년생 좋은 표정은 자기도 모르게 좋은 운이 다가온다, 71년생 결론은 내 뜻대로 된다, 83년생 시대에 맞춘다 해도 옛것을 따라갈 수 있는지는, 95년생 자신만이 아는 재물정보가 소중한 것 같지만 글세,

김상회의四季

절기와 운명

절기는 단순히 기후 현상에만 연관 짓는 것은 매우 표피적이다. 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일 년 365일을 24단위로 나누어 이름을 붙인 것이다. 물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지구에 빛이 많이 닿으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니 농작물의 생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 농업을 주로 하는 국가들에 있어 절기를 따져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물질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파장으로도 인간 운명의 춘하추동을 대입시키는 운명 예측까지 접목하여 발전시켰다. 그 절기와 운명의 대입이 과학이라 할 수 있음은 설득력이 높다.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중요 요소인 사주명조는 음양오행이 기반이며, 음양오행의 기본 구성요소는 지수화풍이다. 뜻 그대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인 것인데, 지수화풍이 근간이 되어 빛을 흡수하여 광합성 작용의 결과로 나무의 요소인 목(木)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지수화풍의 4대가 초목을 길러내는 근간이고 초목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 존재들의 먹이사슬 출발이 되기에 오행이 된 것이라고 통찰한다. 따라서 명리학이 절기와 밀접한 관계인 것은 사주의 감명에 있어 오행의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지수화풍의 균형을 뜻하는 조후는 치우침이 없이 원만할 때를 매우 길상하게 판단한다. 따라서 사주명조의 길흉을 가늠하는 것이 조후라 해도 무리가 없다. 조후가 어떠한지를 보아 나의 운기는 봄인지 추운 겨울인지 판명할 수 있고, 나무가 봄이 되면 겨우내 얼었던 뿌리가 물을 흡수하여 또다시 푸른 잎이 무성하다가 다시 가을이 오면 잎을 떨구고 앙상하게 겨울을 인고해 나가는 순환을 보여준다. 사주학을 기후학이라 하는 이유이니 절기에 대한 이해가 명리학의 절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5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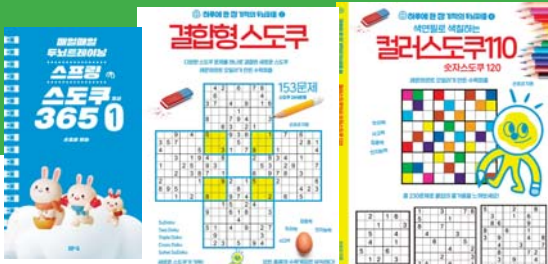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3	5	6	1	8
	5			1		2	9	
	2				6			
					7		5	6
	9						4	
5	6		4					
			8				2	
	4	9		5			7	
7	8	5	1	2				4



8		4		9	1		6	2
7						5		
	5	8				4		1
5				6				
2			8		9			5
				4				8
1		9				3	8	
		7						9
3	6		9	2		1		4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레디트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ㄴ	9	6	8	ㄷ	ㄴ	9	8	ㄴ
ㄴ	ㄴ	8	9	9	6	ㄴ	ㄴ	ㄴ
9	ㄴ	1	6	ㄴ	8	9	8	ㄴ
ㄴ	8	ㄴ	1	6	ㄴ	8	9	9
8	ㄴ	9	ㄴ	9	ㄴ	1	6	8
9	9	8	ㄴ	ㄴ	6	ㄴ	ㄴ	1
6	8	ㄴ	9	8	9	ㄴ	ㄴ	ㄴ
ㄴ	6	ㄴ	ㄴ	1	8	9	9	9
8	ㄴ	9	9	8	ㄴ	ㄴ	ㄴ	6

ㄴ	ㄴ	1	8	ㄴ	6	9	9	8
6	9	ㄴ	8	1	9	ㄴ	8	ㄴ
9	8	ㄴ	ㄴ	9	ㄴ	6	ㄴ	ㄴ
8	1	6	9	ㄴ	ㄴ	ㄴ	ㄴ	9
9	ㄴ	9	6	ㄴ	8	ㄴ	1	ㄴ
ㄴ	8	8	ㄴ	9	ㄴ	1	6	9
1	ㄴ	9	8	ㄴ	8	9	6	
8	6	9	ㄴ	1	9	ㄴ	ㄴ	ㄴ
ㄴ	9	ㄴ	1	6	9	ㄴ	8	8